

현안 해결책은 없고...광주시의회 '맹탕' 시정질문 남발

‘참신한 초선’ 기대했지만...시정발전 질문보다 발언 수준 그쳐 기대 이하 질문 재탕에 언론 지적 인용하는 수준...현안 해결·대안 제시 못해 아쉬워

2024년 제9대 광주시의회 상반기 시정질문은 마무리된 가운데 시의원들의 ‘재탕’ 시정질문에 대한 굵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공부하는 의회’라는 기치로 참신한 초선들의 행보를 기대했지만 무늬만 질문일뿐 던지기 식 ‘맹탕’ 질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

지 열린 올해 상반기 시정질문에서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새로운 시정 지적 사항을 발굴하지 않는 데다 이전에 나왔던 시정질문을 재탕하는 등 시정질문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의원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서틀열차

가 폐지된 후 대응 방안으로 서틀버스 도입을 주장하는 질의를 준비하다 지난해 10월 시정질문과 내용이 겹치는 것을 확인 후 이번 시정질문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의원은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등 이미 정치권에서 마무리된 문제를 가지고 와 ‘던지기 식’ 질문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9대 광주시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초선들을 중심으로 5·18 관련 릴레이 5분 발언을 하고 5·18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참신한 성과를 거뒀지만 9대 개회 2년 차 반환점을 돌면서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괜찮은 주제를 선정한 의원도 언론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인용했을 뿐 좋은 주제의 시정질문을 발굴하지 못해 아쉬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1년에 상반기(6월)·하반기(10월) 두 번뿐인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이끌고 현안을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맹탕 질문’으로 실망감을 주고 있는 셈이다. 대안 제시나 시정 발전에 도움 되는 질문보다는 5분 발언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의원 지역구 민원이나 정치색 짙은 질문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시정질문은 그 어느 때

보다 광주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외면한 채 시의원 본인의 평소 관심사나 지역구 관련 질문만 가득해 지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질문은 의원 본인의 지식을 뽐내거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다”며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이 다른 회기와 다르게 방송 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평소 시정에 대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개최 결의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1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개최 결의대회'에 참석, 주요 내빈들과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방소멸 극복 '전남 특별자치도법' 발의 환영

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도움 기대 전남도는 11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

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 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공지능 시민 일상 속으로...광주시 AI실증도시 도약

24일까지 시민·지역기업 AI 바우처사업 이용자 모집

광주시가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시민 삶 곳곳에 접목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실증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광주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기업의 AI 사업화를 돕는 '시민·지역 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이용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민이 지역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AI 제품·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이용하면, 광주시가 관련 비용의 9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즈니스와 의료·보건·복지, 문화·관광·스포츠, 안전·방범·방재, 교육·학습, 고용·근로 등 7개 분야 총 19개의 AI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비즈니스 분야는 클로즈업의 '가상피팅 패션 플

랫폼 XFashion', 자이냅스의 '딥러닝 AI 챗봇', 엑스알에이아이의 '편리한 CS응대를 위한 AI 챗봇', 이즈소프트의 '인공지능 기반 기업형 챗봇' 등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는 렉스소프트의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이노디테크의 '인공지능 치아 배열 최적화 및 치아 교정 장치', 디지털메디의 '시니어 인지훈련 및 정서케어 플랫폼', 소울소프트의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 관리 솔루션', 에이아이플랫폼의 '안저질환 조기 검사' 등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학습 분야는 밍글론의 '인공지능 기초 융합 프로그램', 헬프티처의 '학교 현장 체험학습 AI 플랫폼' 등의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안전·방범 분야는 마이렌의 '실시간 사고 감지 플랫폼', 인트플로우의 '사고 현장 감지 엣지세이

프', 세이프모션의 '어린이집 행동 분석 솔루션' 등을,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는 고고탁의 '스마트 탁구라켓' 등을 제공한다. 또 고용·근로 분야에서는 디투리스소의 '인공지능 무인 매장 운영 시스템', 기타 분야에서는 아토모스의 '디지털 마케팅 통합 AI 솔루션', 이트랜씨엔씨의 'AI 케리커처', 보다의 'AI 기반 드론 전문 인력 매칭 플랫폼' 등을 선보인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이용할 수 있으며, AI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aica-gj.kr/vouche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제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 시민들은 일상에서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광주 지역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고객 확보를 통해 광주시가 AI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 세대 모집

11월 30일까지 선착순 300세대 광주시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 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435W)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비용 90만원 중 광주시가 63만원을 보조하며,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또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 설비 전기 요금 부담 완화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세대는 한 달에 40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월 9000원 인편의 전기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상 광주 지역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00세대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현지인 찐 맛집 추천 받아요"

광주시 9월 30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지역민이 추천하는 '찐 맛집' 찾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2025년도 광주 맛집'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추천과 신청을 받는다 고 11일 밝혔다. 시민·전문가 추천과 희망업소 신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우수음식점을 모집한 뒤

맛·차림새·식재료·가격 적정성·서비스·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여곳을 선정한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음식 전문가·학계·관광 종사자·소비자 등 평가단 50여명을 위촉하고 광주 맛집 선정위원회를 추가 구성해 단계별로 심의한다. 광주온(https://gwangjuon.gwangju.go.kr/)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도 반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